

스타트업, 모태펀드 예산축소 우려… 절반은 해외진출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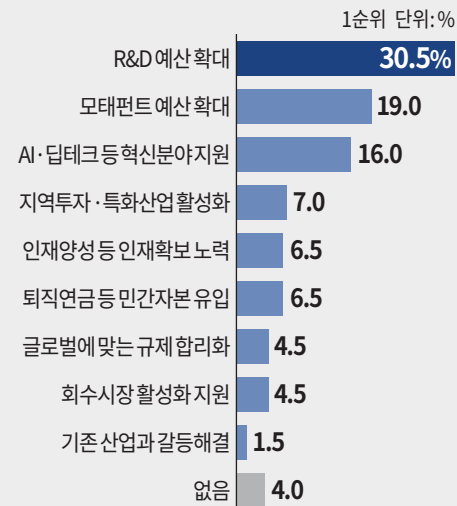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발표

정책 기대 1순위는 R&D 확대
모태펀드 예산확대 요구 급증
해외사업 54.5% 동남아·美·日
가장 알고픈 기업 ‘토스’ 압도 1위

벤처투자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모태펀드 예산 삭감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스타트업 창업자들도 연구 개발(R&D) 예산 및 모태펀드 예산 확대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일하는 방식을 알고 싶은 스타트업으로는 토스가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같은 내용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와오픈서베이가창업자(200명), 스타트업 재직자(200명), 대기업 재직자(200명), 취업준비생 200명등 총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19일 내놓은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25’에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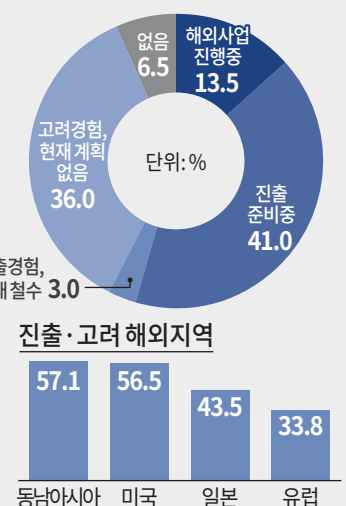
스타트업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정책



자료/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25

리포트에 따르면 ‘사업에 직접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정책’ 1순위로는 ‘벤처·스타트업 R&D 예산 확대’(30.5%)와 ‘모태펀드 예산 확대 및 존속 기간 연장’(19%), ‘AI·딥테크 등 혁신

스타트업 해외시장 진출 계획과 원하는 지역



그래픽/정민주 기자

분야 집중 지원’(16%)을 주로 꼽았다. 이런 가운데 벤처캐피탈(VC) 업계도 모태펀드 예산이 줄어드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학균 VC협회장은 “모태펀드 예산

축소는 겉으로는 재정 절감처럼 보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민간 투자 감소와 신산업 성장 둔화,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더 큰 비용을 초래한다”며 “AI를 포함한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모태펀드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내년)예산을 최소한 정부안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답변이 ‘부정적’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창업자의 64.5%, 스타트업 재직자의 54.5%가 ‘긍정’을 전망한 반면 ‘부정’은 각각 12.5%(창업자), 6.5%(재직자)에 그쳤다. 정부에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싶은 지원으로는 ▲투자활성화(기술 등) ▲다양한 자금 조성·지원 ▲다양한 회사에 지원·편중 투자 지양 등을 꼽았다.

스타트업의 41%는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13.5%는 실제로 해외시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절반이 넘는 54.5%

가 실제 진출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다. 원하는 지역은 동남아시아(57.1%), 미국(56.5%), 일본(43.5%) 순이었다.

다만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은 ‘비즈니스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확보’(57.1%)와 ‘유통망·판로 개척 및 확보’(48.7%), ‘현지 시장 정보 및 법률·정책 파악’(42.2%)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과 ‘일하는 방식을 알고 싶은 스타트업’으로는 토스가 모든 설문 대상자에서 고르게 1위에 올랐다. 이외에 당근, 쿠팡, 뽀빠이, 푸리오사도 많이 꼽혔다.

창업자들이 바라보는 ‘스타트업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1~3순위 합계)으로는 네이버가 46.5%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외에 카카오(34%), 삼성(29%), SK(25.5%), 현대자동차(17.0%)가 뒤를 이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지역 中企 AX 불균형, 지자체 협력 핵심”

중기부 ‘지역 AI 대전환 비전선포식’ 스마트제조혁신 3.0 컨퍼런스 진행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9일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AX 불균형 해소와 안착을 위해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 중소기업의 AI 활용·확산을 위한 ‘지역 AI 대전환 비전선포식’에서 “중기부도 AX를 통한 실질적인 효과가 기업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에 선정된 경남, 대구, 울산, 전남, 제주 등 5개 지방정부와 지역 중소기업의 신속한 AI 도입 및 안착,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자리로, 선포식과 스마트제조혁신 3.0 컨퍼런스 그리고 AX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 제조혁신 유공표창,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 AI 대전환 비전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스케일업팀스 운영사 및 AI 공급·수요 기업 간담회, AI 공급기업 IR 등 다양한 내용으로 펼쳐졌다.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중기부에서 AI 활용률이 낮은 지역 중소기업의 빠른 AI 전환을 위해 2차 추경을 통

해 35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한 신규 사업이다. 지방정부가 지역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기획한 AX 활용·확산 사업에 대해 공모를 통해 지난 10월 지자체 5곳을 선정할 바 있다.

비전선포식에선 경남이 ‘제조 특화 AI 대전환’ 사업을 통해 주력산업인 기계, 항공, 에너지 등에 AI를 융합해 지역 경제를 부활시키길 원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 8월부터 13개 지방중기청에서 치열한 예선전과 본선을 통해 선정된 10개 중소기업의 AX 우수사례와 스마트제조 구축 우수사례에 대해 장관상 등을 수여했다.

대상을 수상한 천원엔지니어링 조환수 대표는 자동차 부품 품질 검사를 위한 AI 비전검사 및 AI 설비 예지 보전을 통해 불량률 42.3% 감소와 생산성 20.8% 향상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김승호 기자

차세대 전동화·모듈 혁신기술 50종 선별

현대모비스 ‘테크 브릿지’ 개최

현대모비스가 올해 개발한 모빌리티 신기술 50개를 고객사와 협력사에 공개했다. 전동화와 모듈사업 부문에서 대표적인 연구성과들을 선정했고, 앞으로 이들을 융합한 통합 설계기술도 지속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경기 의왕 소재 전동화연구소에서 ‘테크 브릿지 2025’를 개최해 완성차 고객사와 부품 협력사를 대상으로 신기술 50개를 소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테크 브릿지는 ‘기술을 잇고 주행을 만나다’를 주제로 전동화와 모듈 부문을 통합해 전시했다. 그동안 부문별로 운영했던 전시회를 올해 처음으로 공동 개최했다. 대형 부품인 모듈과 전기차 핵심 부품인 전

동화 부문 간 시너지를 통해 수주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전시회에서 현대모비스는 배터리와 구동 부품 등 전동화 분야에서 28개, 새시모듈과 운전석(각핏)·실내 조명·외장 등 모듈 부문에서 총 22개의 신기술을 선보였다.

올해 현대모비스 전동화 부문의 우수연구개발 사례로는 도심형 소형 전기차에 특화된 120kW급 소형 PE(Power Electric)시스템이 소개됐다. 모터와 인버터, 감속기를 통합한 구동시스템으로, 더 많은 적재가 가능하도록 부품의 높이를 낮춘 저장형 구조로 설계됐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PE 시스템 개발로 중형·대형에 이어 소형까지 전기차 전 차종을 아우르는 구동시스템 라인업을 확보하게 됐다.

/양성운 기자 ysw@

中企 86% “정년연장보다 선별재고용 선호”

중기중앙회, 304개사 의견조사

중소기업 대부분은 정년 연장보다 정년퇴직자 가운데 선별해 재고용하는 것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9일 발표한 ‘고용연장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6.2%는 정년퇴직자에 대한 ‘선별재고용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반면 ‘법정 정년 연장’을 희망한 기업은 13.8%에 불과했다. 직무 및 성과 등에 따라 고용 연장 여부를 정하는 선별재고용은 법정 정년 연장보다 임금 조정, 고용 종료 시점 결정 등이 자유롭다. 기업의 41.4%는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경우 부담 요인으로 ‘인건비 부담의 증가’를 1순위로 꼽았다. 산업안전·건강이슈(26.6%), 청년 등 신규채용 기회 감소(15.8%), 생산성 및 업

무효율 하락(12.2%)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 기업 3곳 중 2곳(67.8%)은 정년 도달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연장 제도를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 기업의 79.1%는 ‘직무·성과·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고용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답했다.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전원 고용 연장을 하고 있는 곳은 20.9%였다. 고용 기간 연장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선 75.7%의 기업이 정년 시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 중이었다. 정년 시점보다 감액은 23.3%였고 증액은 1.0%에 불과했다.

정년퇴직 후 계속 고용이 필요한 직무는 생산기능직(47.7%)이 1위를 차지했다. 일반사무직(21.4%), 연구개발직(20.7%), 서비스판매직(5.9%) 순이었다. 고령인력의 고용을 촉진하는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고용지원금(88.5%), 조세 지원(85.2%) 등이 거론됐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구조혁신지원으로 산업전환기 中企 성장 견인

3년간 1861곳 대상 전환 컨설팅 참여사 평균 매출 6.8% 늘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구조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산업전환기 중소기업 성장을 이끌고 있다.

중진공은 디지털화,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구조혁신지원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2022년 새로 도입한 ‘구조혁신지원사업’은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해 신사업 전환을 모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로드맵 수립부터 정책자금·R&D 연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중진공은 도입 첫 해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사업·디지털·일자리 전환 등 구조

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한 186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성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사업 참여기업의 지원 1년 후 평균 매출액은 약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은행의 2023년 기업경영분석보고서(2024년 10월 발표)에 따른 국내 일반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 증가율 2.8%보다 약 4.0%p 높은 수치로, 구조혁신지원사업이 기업의 재무성과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례로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기업 백역전자는 중진공의 사업전환 컨설팅을 통해 매출은 163.3%, 종업원 수는 23.1% 증가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여경두 백역전자 대표는 “기존 LED에서 자동차 전장부품 분야로 사업구조

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많았는데 중진공의 사업전환 컨설팅을 통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다”며 “특히 사업모델 고도화, 설비투자 계획 수립 과정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지난 3년간 구조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중소기업이 경영 체질을 개선하고 매출 등 성장성 부문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뤄냈다”며 “앞으로 AI·디지털·탄소중립 등 미래 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혁신 수요가 더욱 확대되는 만큼 보다 정교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조혁신지원사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중진공 구조혁신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